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JY 등 그룹총수 일일이 거론… "對美투자 적절한 시기"

트럼프-대기업회장 합동간담회

"한미, 호혜적 무역협정 체결
경제관계 車 기업에도 적용"

중기업계, 개성공단 가동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해준 한국 기업들, 그것을 이끌어준 한국 대기업의 총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숙소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CJ, 두산 등을 거명한 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앞자리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일으켜 세워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어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설명, 지난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고 굳건한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면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신동빈 회장이 참석했으며, LG그룹에서는 구광모 회장 대신 권영수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허영인 SPC 회장, 박준 농심 부회장 등 유통·식품 업계 대표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 대표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한미 경제인 미팅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동 시간을 가졌으나 별도의 발언 기회는 없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계도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과 더불어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북미정상간 상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된 남북미간의 대화는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문점에서의 북미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의 재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의 평화를 경제성장으로 발전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트럼프 두번째 만난 후 '추가투자' 검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난달 백악관서 '30분' 이례적 면담
트럼프, 신동빈에 친근한장면 연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인공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경제인 간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추가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국내 재계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했다. 당시 신회장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가 31억달러(약 3조 5821억원)를 들여 미국에 대규모 석유화한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백악관 면담은 30분 정도 진행됐다. 트럼프가 외국 정상과의 면담을 5분 이내에 끝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과 만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기업의 최대 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인의 일자리 수천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는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작성했다.

두 번째 만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의 루이지애나 사업 투자, 롯데월드타워 등에 관해 칭찬하며 여러 번 호감을 표시했다. 간담회 뒤 퇴장할 때는 유일하게 구면인 신 회장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친근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간담회 사진에서도 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경제인 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님도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며 참석자 중 유일하게 신 회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훌륭한 많은 일들을 성취하셨는데 제 옆에서 같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다"며 "신 회장은 3조60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에 투자해 주신 한국 기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차례로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줄 것 등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랜드마크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월드타워를 처음에 본 뒤 굉장히 감탄했다"며 "아름다운 타워를 세운 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대기업 총수들, 對美투자 카드 만지작

고민 깊어진 총수들

트럼프 '화웨이 압박' 언급없어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0일 한국 주요 대기업 대표들과의 회동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회동 시간이 약 30분에 불과했고 참석한 기업인들이 발언할 기회도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와 찬사의 뜻을 거듭 밝힌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특히 당초 이날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에 한국 기업의 동참을 종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데에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주요 그룹 총수 등과 따로 만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이 사실상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뭣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재선 목표를 염두에 둔 국내 정치용 '자화자찬'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2년 반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 정책의 성과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추가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한 것은 기업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친기업' 성향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짧은 회동이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추가 투자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도 속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직접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미 투자 확대 제안을 받은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인구·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와 최저임금 등으로 국내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미 투자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뒤로 지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CJ그룹 손경식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당장 이날 롯데와 CJ그룹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3조6000억원 가량의 대미 투자(루이지애나 주 에틸렌 공장 설립)를 단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 /양성운 기자